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청소년을 대하는 기성인의 기준은 자신들의 우려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부모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내재된 것은 아닌지. 청소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방법은 더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다.



정 찬 회
성동청소년수련관 준비팀 부장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아이들

요즈음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삶의 환경이 청소년세대의 삶의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우선 기성세대는 살아온 시간이 살아갈 시간보다 많고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반면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아직 낯선 곳이며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기를 흔히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기성세대에서 청소년기를 부르는 말일 뿐이다.

청소년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각자의 생을 걸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다. 비록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 안다면 누가 자신의 온 삶을 걸고 미지로의 여행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이상을 향해 벅찬 가슴으로 날

아오를 것이고 많은 시간과 정열을 들인 후 그것을 달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현실적인 척도일 뿐이지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너무나 다른 아이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친구들과 사온 옷이라 자랑했지만 우리 부부는 내심 못마땅했다. 게다가 요즘 유행한다는 복장에 어울려야 한다며 젤을 머리에 발라 바람맞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아버지인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많다.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을 9시로 정해 두면 9시 30분쯤 되어 나타난다. 거의 1년여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10시로 못 박았지만 10시 10쯤 되어서야 나타나니 아버지인 나는 감정이 혼동스럽다.

말을 안 듣는 아들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같기도 하여 타이르기도 하고 체벌을 가한 적도 있으나 잠시뿐 이젠 강제에 의해서는 도통 이길 수가 없으니 기다리거나 타당한 말을 해서 녀석이 들어주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당연한 세계에 아들은 문득문득 따지거나 왜라고 물어보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 중학생인 딸아이는 방학하는 날 개학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아이다. 정해진 대로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고 한 학기 동안 주일미사며 교리 수업에 빠지지 않아 상당 장학금까지 받는 등 그 성실함을 자랑하고 있다.

흰 도화지에 본을 뜨고 색을 칠하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이의 생각이었는데 어릴 적에 그림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긴장해 있다”며 아이다운 상상력이 발휘되지 못함을 걱정했다. 부모인 내가 볼 때는 딸아이가 더 착한 흔히 말하는 모범생으로 보인다. 어른 말씀도 잘 듣고 기성의 가치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할 때

삶에서 특히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생을 추동할 수 있는 상상력과 자기 확인을 통한 세계관의 재구성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교과서의 그림으로만 보는 법씨와 못자리에서 싹을 틔

우는 법씨는 삶에 있어서 대등할 수 없다. 사철 수 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딸기를 보고 자라는 지금 세대는 딸기를 어느 계절 과일이라 이해 할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유용한 자원과 정보를 정리하여 일반화한 후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환경은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지식을 분석 가공하여 전달하기 전에 사장된 지식과 정보가 되어 버린다. 기성의 가치와 시스템으로는 현재적 대응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에 대해 청소년들이 새롭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청소년을 대하는 기성인의 기준은 자신들의 우려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학교 수업 외에 아무것도 안 시키자니 내 아이만 뒤쳐지는 것 같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고 아이가 자신만의 무엇을 한다고 나서는데 부모 스스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것이 터널을 지나듯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청소년들과 하나가 되어 기다리자. 그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다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다.

“옛 어른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 마음 안다더니, 제가 요즘은 짝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딸을 둔 마음입니다. 한편으론 이래도 조심스럽고 저래도 걱정이 되고 뒤집어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